

지하철 공사로 꼭 막힌 도로, 6년만에 뱅 뚫렸다

목표구간 16.3km 원상복구...백운광장 일원 등 687m 제외
‘도로개방’ 시장직 걸었던 강기정 시장, 대시민 약속 지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구간 도로가 22일 전면 개방됐다. 지난 2019년 9월 착공 이후 공사로 통제됐던 도로가 약 6년만에 원상 복구되면서 도심 교통 흐름도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광주시는 이날 시청 시민홀에서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도로개방 현장 확인’ 행사를 열고, 그간의 공사 추진 경과와 현재 공정 상황, 향후 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관련기사 6·19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소상공인과 시민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시청을 출발해 1공구와 6공구 등 이번엔 개방된 구간을 직접 점검했다. 착공 이후 왕복 2~4차로로 축소됐던 도로는 착공 전과 같은 왕복 6~9차로로 복구되면서 차량 흐름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현장에 참여한 한 시민은 “도로가 뱅 뚫린 모습을 보니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게 실감난다”며 “그동안의 불편이 해소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이 지난 7월 시장직까지 내걸며 시민과의 약속한 날인 이날 도로가 열렸다. 결국 그의

초강수가 통한 셈이다.

강 시장은 “도시철도 공사는 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대자보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이라며 “긴 시간 참고 기다려주신 시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1단계 도로개방을 계기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도로 관리에 힘쓰고, 남은 도시철도 공사도 제때 안전하게 완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은 시청에서 금호지구~풍암지구~백운광장~조선대~광주역 뒤편을 잇는 총연장 17km 노선이다. 광주시는 1단계 도로개방 목표 구간 16.3km에 대해 개방률 100%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하정거장 자체 반입과 백운고가 철거를 대체하는 지하차도 공사가 진행 중인 백운광장 일원 등 일부 구간은 부득이하게 차로 점유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방에서 제외된 구간은 금호지구입구사거리, 금호시영아파트 앞, 무등시장 주변, 광주역 뒤편 등 정거장 4곳과 백운광장 일원으로, 총연장 687m다. 해당 구간은 자체 반입이 완료되는 내

년 3월과 지하차도 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당초 지난 6월 대부분의 도로를 개방할 계획이었으나, 굴착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지하 암반이 당초보다 46.1% 추가로 발견되면서 공정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여기에 전력선과 도시가스관, 상·하수관로 등 지하 매설물이 30년 전 설계 기준보다 약 1.8배 늘어나 공사 여건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설명이다.

공사 기간 동안 교통 혼잡과 상가 피해, 인근 건축물 안전 문제 등 민원도 잇따랐다. 광주시는 2019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국민신문고와 전화 등을 통해 접수된 타이어 파손, 복공판 단차, 교통정체 등 민원 3962건을 모두 처리했다.

시민 불편이 장기화 되자 광주시는 지난 7월 ‘시민불편 신속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해 울통불툠한 도로 정비와 차선 재도색, 유도선 설치 등을 집중 추진했다. 이를 통해 교통량이 많은 주요 노선과 교차로 26곳, 총 3.7km 구간을 정비하며 교통 불편을 단계적으로 해소했다.

김준영 시 시민안전실장은 “공사 전 과정에서 속도보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면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과정에서 인명사고 없이 공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3@gwangnam.co.kr



광주 도시철도2호선 1단계 구간 도로가 개방된 22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1공구(201~202정거장 사이) 구간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시민들이 뱅 뚫린 도로를 걷고 있다. 도시철도2호선 1단계 구간은 시청에서 금호지구~풍암지구~백운광장~조선대~광주역 뒤편을 잇는 총연장 17km 노선이다. 광주시는 이날부터 백운광장과 정거장 4곳을 제외한 16.3km 구간의 도시철도 공사구간 도로를 개방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2025 중소기업경영인대상 수상자 오늘 시상식

오후 2시 영주체육관 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수상자 특집 9~12면

전남도, SK와 AI 데이터센터 구축 본격화

김영록 지사, 정석근 AI CIC 대표와 면담...인프라·행정 지원 논의

전남도 SK그룹이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축으로 한 AI 인프라 협력을 본격화한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전남도 서울중앙협력본부에서 정석근 대표를 만나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포함한 AI 인프라 협력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전남도 SK그룹 간 AI 협력 구상을 실무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첫 공식 후속 논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 대표는 SK그룹의 AI 전략 실행을 총괄하는 SK그룹 AI CIC 초대 대표로, 그룹 내에 분산돼 있던 AI 관련 조직을 통합해 전략 수립과 실행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전남도는 이 조직과의 직접 협의를 통해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구축 논의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만남은 지난 11월 3일 ‘SK AI SUMMIT 2025’에서 김 지사가 최태원 회장을 만나 글로벌

별 AI 데이터센터 협력 방안을 논의한 이후 이어진 후속 일정이다. 특히 지난 10월 1일 발표된 OpenAI·SK그룹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놓고, 전남이 핵심 거점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면담에서 양측은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조성 방안과 함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지원과 전력·부지·인허가 등 실무 현안을 폭넓게 점검했다. 전남을 아시아태평양 권역 AI 허브로 육성한다는 비전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영록 지사는 “글로벌 AI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개별 기업 투자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대형 프로젝트”라며 “전남도와 중앙정부, SK그룹이 참여하는 3자 협의회를 구성해 전남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AI 핵심 거점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특위’ 공식 출범...내년 1월31일까지 활동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2일 출범했다. ▶관련기사 2·13면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여객기참사국조특위 첫 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장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을, 여당 간사에는 이수진 의원을, 야당 간사에는 김은혜 의원을 선임했다.

국조특위가 회의에서 채택한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는 이날 11시 20분께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조사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조사 대상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이 포함됐다.

국조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 2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위원으로는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김성희·조인철·황창아·김동아·김문수·김상욱·이광희·전진숙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민의힘 위원으로는 김은혜 의원을 비롯해 정성국·김미애·서천호·이달희·이성권 의원이 참여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의 특위 위원에 선임됐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라남도 곳곳이 영화의 한 장면이 됩니다!

★★★★★
〈모범택시3〉, 〈폭삭 속았수다〉
〈파인: 촌뜨기들〉
전라남도 로케이션 촬영지원

★★★★★
전남배우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아요
전남배우

★★★★★
다들 부러워해요. 우리를 보고
너무 예쁜 곳에 살고 있다고
전라남도 찾아가는 영화관 ‘마을영화’

★★★★★
저에게 전남연기캠프는
꿈을 이루어지게 해주는 발판이에요
최수종과 함께하는 전남연기캠프

★★★★★
컨테이너 특별관 야외에서
영화를 처음 봤는데, 별도 보이고 너무 좋았어요
남도영화제 시즌2 광양

우리의 일상이 영화가 되도록, 전남영상위원회는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영상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라남도 JNFC 전남영상위원회